

“드림 학생회의 '청춘 드림' 봄 행사, 한농대 대운동장을 물들이다.” - 벚꽃 아래, 청춘을 드리다 -



청춘드림 포스터-드림학생회

과제와 실습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난 4월 2일 저녁, 한국농수산대학교 대운동장과 풋살장 일대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드림 학생회'가 주최한 봄 축제 '청춘 드림'이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새 학기를 맞은 신입생을 환영하고, 쏟아지는 과제 속에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학생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회는 “청색 봄을 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행사를 꾸렸다.

오후 6시 30분 입장하고 함께 운동장에는 피크닉 돗자리 50개가 펼쳐졌다. 학생회 비 납부자에게는 돗자리와 무드등, 코인 5개로 구성된 피크닉 키트가 무료로 제공됐고, 배달 음식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달존도 운영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 7시부터는 자유 피크닉과 소개팅 코너가 진행되며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이 봄밤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어 노래방 운영과 '학생회를 이겨라' 게임 코너가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9시, 밴드부 SLAM의 야외 공연이었다. 라이브 선율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자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에 집중했다. 오후 10시에는 추첨권 경품 행사로 대미를 장식했다.

풋살장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별도 부스가 운영됐다. 제기차기·사격·공기 등 전통놀이 부스와 엽서·4행시·팬지쓰기 자유 체험 부스가 마련돼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청춘드림 행사를 즐기고 있는 학우들



청춘드림 행사가 진행중인 운동장 모습

[학생 인터뷰]

원예환경시스템학과 3학년 A씨는 “수업과 보고서에 치여 봄이 온 줄도 몰랐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돗자리에 앉아 하늘을 보니 그제야 봄이 실감 났다”며 활짝 웃었다.

[학생회 임원 인터뷰]

드림 학생회 기획부장 최진강 학생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학생들이 서로 얼굴 보며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의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제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입을 모아 학업과 실습으로 지친 일상 속에서 모처럼 바깥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학생들의 얼굴에는 산터미 같은 보고서에 치여 잊고 지냈던 캠퍼스의 낭만과 청춘의 활기가 가득해 보였다. 학생회가 약속한 대로 바쁜 학업의 여정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학생들에게는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 더미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한농대 학생들은 그 밤, 찾아온 봄을 충분히 누렸다.

사회부 두기동 기자
24200275@af.ac.kr

봄비와 함께 한 입학식... 26학번 신입생 502명 입학



신입생 대표 박영성 학생과 이주영 한농대 총장

지난 2월 27일, 한농대 대강당에서 작물산림학부 133명/원예학부 148명/축산학부 118명/농수산융합학부 103명 총 502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다만, 축산 전공자 및 관련 축종 종사자는 인수공통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3월 2일에 기숙사에 입실하여 다음날에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30회 입학식에는 이주영 총장, 교직원, 동문회와 학생회 회원 등이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앞선 2월 24일 기숙사에 입실한 신입생들은 2월 25일~26일 이틀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25일에는 학점·교과목 이수율과 졸업요건 등 학사 안내,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도장 찍기 미션을 통한 캠퍼스 투어, 전북교육청 한재훈 강사의 폭력 예방 교육, 학부별 안내가 진행됐다. 26일에는 두 졸업생의 선배 특강, 청학관장의 기숙사 생활 안내와 실습팀장의 장기현장실습 소개, 졸업생 의무 영농 이행을 위한 교육과 김효철 교수의 안전교육, 전문업체의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입학식 당일인 27일에는 동문회와 학생회가 단상에 올라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농대 밴드 동아리 'SLAM(슬램)'에서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①농어업·농어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로 과학영농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현에 앞장설 것 ②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 ③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하여 미래 농어업·농어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했다.

이주영 한농대 총장은 입학 식사를 통해 신입생들이 앞으로 한농대에서 농어업 전문 지식과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정예 농수산 인력·전문 농어업경영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한농대 교직원들은 신입생들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30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미래의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가기 위한 첫발로써 알찬 대학 생활을 꾸려나가길 바란다.

사회부 김진아 기자
26120049@af.ac.kr



한농대 김승희 교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학회장 선임

K-컬처의 열풍이 동남아시아 식탁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한국 농업도 국경 너머를 바라볼 때가 왔다. 올해 1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승희 교수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0년째 학생들에게 과수학을 가르쳐온 그가 이번엔 학회장으로서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가 바라보는 한국 농업의 미래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교수님의 경력과 주요 연구 분야를 상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A1. 충북대 대학원에서 포도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국가장학금을 받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호헨하임 대학에서 사과 화아분화를 주제로 박사후과정을 2003년에 마쳤습니다. 2005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에 입사했고, 그 후 농진청 기술협력에서 남미와 아프리카를 담당하며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콩고,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10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농대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11년째 학생들에게 과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진청과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의 생육 변화, 재배적지 이동, 피해 대책 등 기후변화가 과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과수원 봄철 서리 피해 예방을 위한 온풍 덕트를 농진청과 공동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Q2. 교수님께서 올해 1월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장직을 맡게 되신 소감과 현재 주된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A2. 사실 2025년에 차기 회장으로 먼저 임명을 받았고, 이듬해 학회 연구 테마를 미리 구상해둔 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학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임명받았을 당시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학회장이 된 지금은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한 2026년도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의 테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이고, 현재는 이에 적합한 현장 목소리 청취와 연구 학술 테마를 모색하면서 학술대회 개최 준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학회장

Q3. 이번 학회장 선임이 우리 학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3. 우리 대학은 교수의 연구활동을 보조할 대학원생이 부족하여 교내 연구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교수들은 최신 논문을 꾸준히 접하고 각 분야의 학회에 참여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교수님의 연구 보조나 논문 검색이 아니면 최신 농업 연구 동향을 접하기 어려울 테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학생들을 학회에 초대하고 주요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과 학회 간의 접점을 넓히고,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신 농업 연구 흐름을 습득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이번 선임 소식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한농대는 국내 농업 생산에만 국한된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제자들도 한농대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학회장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4. 말씀드렸듯,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의 26년도 테마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입니다. 그렇기에 국산 농산물을 품목별로, 수입 대상을 문화권 및 나라별로 연구를 기획 중입니다. 올해 연구 방향은 이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학회가 국내 생산 농산물의 수출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중 생산이 과잉되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생산이 과잉되면 당연히 그 농산물은 제값을 못 받고, 농가는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과잉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농가가 재배면적을 줄이면 금전을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농업인들이 계속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이유는 본인이 품목을 재배하는 데에 자신이 있고, 상대방보다 더 고 품질로 재배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든 마음 인겁니다. 하지만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고, 농업인들도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K-컬처의 영향력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갯잎 품귀 현상이 일어날만큼 갯잎 인기가 많아서 한 한국인이 직접 가서 갯잎을 재배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K-컬처가

열풍인 지금이 수출을 확대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내 농산물 수출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서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국내 시장 및 농가 그리고 수입국의 소비자도 포함해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목표로 학회에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Q5. 학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 농업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A5. 농진청 국제협력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 아프리카를 담당했는데, 보통 아프리카 하면 기아, 빈곤, 죽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안타깝게 여기지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면, 그분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 다.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도 지금의 아프리카 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고요.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그분들은 물 한 잔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잘 사는 나라는 따라가야 할 선진국으로, 못 사는 나라는 일방적으로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를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배워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ODA사업이나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과 물자를 지원해도,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원물자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실행했기 때문이죠. 협력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협력 방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농업 기술을 우리나라가 발전시키면 상호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식으로 협력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학생들도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또 학회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어가길 바라시나요?

A6. 오는 6월 19일 한농대에서 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 진행 시 학생들도 참관이 가능하고, 학회 등록은 현장에서 학생회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졸업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학회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를 통해 국제 농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운다면, 해외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농업 창업을 하면 초기 부담이 상당한 반면,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농업 창업을 매우 환영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농업 창업에 성공한 졸업생 사례도 적지 않고요. 본인이 정말 농업을 하고 싶다면, 그게 국내든 국외든 무슨 상관이었을지 모르겠습니 까. ‘국제’라는 단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농산물 수출도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 시장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넓은 해외 시장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Q7. 학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와 한농대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A7. 농진청에서 해외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농대의 교육 시스템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전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바라보자면, 해외에 한농대 모델의 새로운 농업대학교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해당 지역 국가들은 현재 농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농업대학이 설립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금전적인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농업개발 학회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서 현지 분교의 연구 성과를 학회가 흡수하고, 반대로 학회의 연구 흐름을 현지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 장구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의 농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Q8.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8. 한농대를 선택해 입학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농업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반 대학은 입학 후에 진로를 고민하지만, 한농대는 입학 자체로 농업인이란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요. 농업인이 블루오션이고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온 만큼, 앞으로 학생들이 가질 직업을 더 보람 있게 만드는 것도 결국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을 하는 우리의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지금 한농대를 다니는 이 세대가 앞으로 농업 분야의 이미지가 될 것이기에 좀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매너 있게, 친절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 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를 선불리 무시하지 마세요. 농업인이란 직업으로 무시받는 것이 싫다면, 우리 역시 우리만의 잣대로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이 정말 멋있으려면 농업을 하는 사람이 멋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지요. 여러분의 직업과 분야, 그리고 모교가 가치 있게 여겨지길 바란다면, 결국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로고

학회 홈페이지: <https://www.eksia.com/index.html>

인터뷰 내내 김승희 교수의 말에는 일관된 철학이 흘렀다. ‘넓고 유연한 시각.’ 김 교수가 아프리카 현장에서 배운 그 교훈은 국제협력을 논할 때도, 농산물 수출 전략을 설명할 때도, 학생들을 향한 당부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국내 시장에만 시선을 두지 않기를 바랐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농업인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가길 당부했다. “여러분의 직업과 분야, 그리고 모교가 가치 있게 여겨지길 바란다면, 결국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그 말은 취재를 마친 기자의 마음에도 한참 동안 머물렀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jja050915@naver.com

우리 양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42차 한국양봉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2022년 1월, 끝벌 대량 폐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제와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국양봉학회는 그러한 양봉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일선에 서서 연구하면서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 축사

지난 2026년 2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제42차 한국양봉학회 정기총회 및 동계 학술대회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도서관 1층 소극장과 창의교육관 2층 중강의실과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데이터 기반 정밀양봉-예방적 관리기술의 실용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대회의 순서는 구두발표(초청연사, 일반 구두발표), 포스터발표(포스터전시), 양봉교육, 심포지엄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양봉학회는 양봉에 관한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한국 양봉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회에서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하고 있는 인물이 우리대학 산업공충전공 김혜경 교수이다. 김혜경 교수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교수님께서 양봉 분야에 몸담아 오신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A1.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0년간 농업연구사로 재직하였고, 2018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공충전공 교수로 8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 18년간 한국양봉학회에 소속되어 양봉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습니다.

Q2. 한국양봉학회에는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계신가요?

A2. 한국양봉학회는 국내 유일의 양봉 관련 학회이며 공공기관의 인지도도 높은 학회이기 때문에, 양봉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연구·정책·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양봉학회에 가입해 계십니다.

Q3. 양봉학회 내에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며, 이번 학술대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3. 현재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논문을 쓰고 심사하는 학술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농대에서 진행된 제42차 한국양봉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는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51개의 구두발표와 36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고, 심포지엄(토론회)와 학생 학회원분들을 위한 양봉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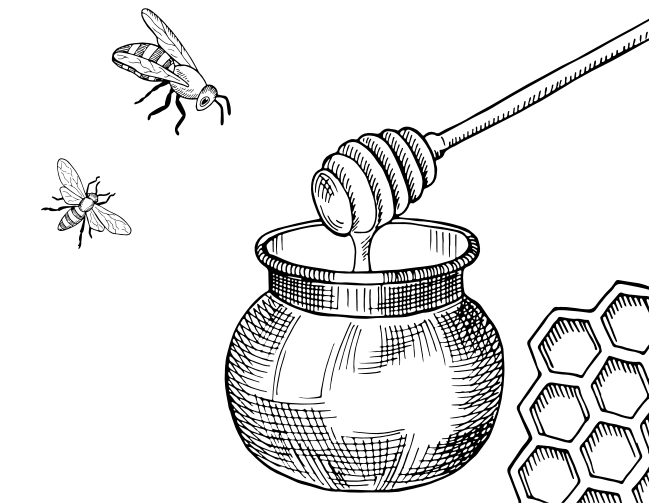
Q4.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중, 특히 한농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논문이 있으신가요?

A4. 네, 강원대학교 모창연 교수님의 “한국형 스마트 양봉의 고도화”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발표 자료는 현재의 모니터링 관리 기술을 넘어 IoT 능동적 제어, 딥러닝을 통한 AI정밀 진단, LLM(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지능형 어시스턴트를 앞으로 양봉산업에 융합하기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양봉의 기술적 융합은 생산성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미래 양봉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 양봉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양봉의 고도화-모창연

*본 자료는 한국양봉학회> 학회게시판> 2026년 제42차 한국양봉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pdf 파일에서 확인 가능.



총장실 문을 두드리다 - 학생, 교육, 그리고 한농대의 발전



이주명 총장

2026년 새해를 맞아 학보의 첫 취재 대상으로 이주명 총장을 찾았다. 2024년 12월 취임 이후 교육과정 개편, 안전 강화, 졸업생 지원 등 학교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주명 총장에게 한농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총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등 농업 행정 전반을 두루 거치신 후 한농대 총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다소 다른 역할일 것 같습니다. 총장으로서의 업무는 어떠신가요?

A1. 저는 1994년 농림수산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제네바 대표부(농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 국제 농업협상 등 많은 농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농수산 인재 양성에 제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2.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농무관으로 근무하시며 국제 농업협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업을 바라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A2.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서 농무관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국제 농수산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은 농어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WTO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는 국제 협상이 주 무대입니다. 파견 나온 외교관들과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국익과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준 곳입니다. 농업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인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Q3.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셨을 때 예상보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셨나요?

A3. 한농대 구성원의 지향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수산업의 발전과 정예 농수산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농대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가 취임식 때 밝힌 조직 문화 쇄신의 핵심이었고, 현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 전공별 대표 등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있으며, 동문·졸업생들도 만나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소통의 과정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Q4. 취임 당시 교육, 안전, 신입생, 졸업생, 국제교육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신 바 있는데요, 취임 1년여가 지난 지금 각각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A4. 취임 당시부터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개선

한농대는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이지만, 생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의 변화와 입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시제도와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별로 세분화된 우리 학교의 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외에도 관심 분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환경·안전 강화

지난해 발생한 장기현장실습장 사고 이후, 학생과 졸업생, 현장 교수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기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습장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우수 실습장을 선정하고, 안전 전문기관의 실습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 지도교수님 중심으로 실습장과 학생 관리

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실습 안전과 학습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은 한농대 교육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수 신입생 선발

2026학년도부터 학부 단위 선발 제도를 없애고, 전공단위 선발로 일원화하였고, 지역균형전형의 모집인원을 늘리고 지원자격을 개선하는 등 선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시 면접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면접도 강화하여 우수 학생 위주로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졸업생 정착 지원

한농대를 졸업하면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졸업생들의 의무영농 이행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지도교수 졸업생 전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지도교수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여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서, 영농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졸업생의 현장 교육수요에 대응한 한농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영농현장에서의 법률 분쟁 및 세무 및 노무 이슈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생의 영농애로 해소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졸업생 대상으로 우수 과제 공모사업과 농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수산분야 국제교육 협력 확대

해외 개도국 청년농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명 선발, 2025년에는 5명을 선발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개도국 대학교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하는 등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개도국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재학생과 졸업생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교 30주년인 2027년에 홈커밍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A5. 한농대는 내년 2027년에 30주년을 맞습니다. 개교 30주년을 기점으로 1기 졸업생 선배들부터 학교로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장 취임 직후부터 제안한 이번 행사는 졸업생들이 한농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수산을 이끌어가는 정예 농수산인재의 집단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만들어가자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홈커밍데이때는 초창기 교수님들과 현재의 교수진,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한농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6. 총장님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농업 현장에서 법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또 농업 관련 법률 강의 개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6. 생활과 영농 등 모든 부분에서 법률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면 상속, 토지, 노무, 계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도 법률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법률 교육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현장에 나가면 농지 임대차 매입, 건축물 공사 계약, 농산물 판매 계약,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하죠. 상속이나 노무 분쟁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법률 강의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강의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업 정책과 법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농수산인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려면 농수산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졸업생 교육 등을 위해 한농대 아카데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속, 노무, 생활 법률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강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Q7. 학교 홈페이지에서 ‘총장님과의 대화’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던 학생과의 대화가 있으신가요?

A7. 홈페이지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신청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학생회나 학생자치회 간담회, 전공별 대표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교생활이나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필요하면 교무처나 교학과에 요청하거나 교수님들께 직접 이야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부담 갖지 말고 직접 와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수업이나 강의의 문제를 그냥 넘기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학생 개인의 손해도 크지만, 한농대가 목표로 하는 정예 농수산 인재 양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총장으로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Q8. 한농대만의 강점과 타 대학교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5년 후, 10년 후 한농대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8. 한농대의 가장 큰 강점은 ‘학(學)’이 아닌 ‘업(業)’을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농수산 이론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은 많지만, 농어업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대학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나 수산양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한농대에 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한농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입니다.

다만 그 ‘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농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미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교육 개편에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농수산업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농대는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을 뒷받침할 정예 농수산인재양성기관으로서 더욱 우뚝 서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9. 농수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9. 우리나라 농산업은 지금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농지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원자재 수입 불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수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우리 농수산업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농어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 농수산대학교는 전면적인 교육개편을 통해 디지털 교육과 가공 및 유통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한농대 청년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Q10. 기후변화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한농대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A10. 농가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 속에서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예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정예 농수산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를 선도할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 농어업 생산기술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 가공 및 유통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수산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생산기술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농장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입지 선정, 품종 선택, 수확 시기 조절, 인력 관리, 판로 개척과 가격 결정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유통,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농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육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1. 한농대 학생 여러분은 선택된 인재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농어업을 바라보는 국민과 세계의 시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한민국 최고의 농수산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농수산인으로서의 미래를 치밀하게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농대 학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수산업과 농어촌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준비를 지금부터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농대 공동체 생활을 함께 있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농대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의 미래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사를 마치며...]

인터뷰 내내 이주명 총장의 말에는 일관된 방향이 담겨 있었다. 생산을 넘어 경영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재학 중을 넘어 졸업 이후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학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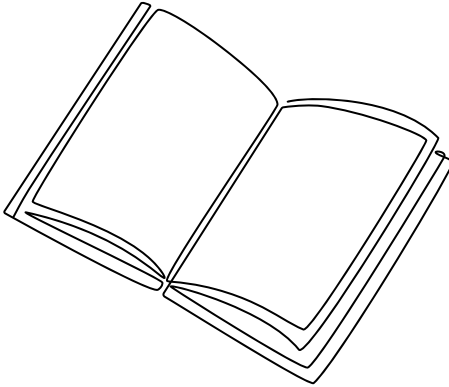
취재를 마치며 이주명 총장이 한농대를 얼마나 깊이 애정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학교를 1년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취임 직후부터 학교 곳곳의 변화를 이끌어왔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들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한농대를 백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기를 바란다.

끝으로 총장이 했던 격언이 인상 깊게 남는다.

“결국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개인이나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핵심을 꿰뚫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jja050915@naver.com



제27회 학위수여식, 끝과 시작 사이에서 날아오르다!



총장 축하 연설

지난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14시,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대강당에서 제27회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21명, 일반학사 111명 총 532명의 학생이 학위를 받았다. 높은 성적과 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해 다양한 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생과 가족을 포함하여 농수산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졸업생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였다.

한농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기숙사비와 학식 비용 또한 국비로 지원된다. 1학년 생활을 하며 기본적인 농업 지식을 쌓은 후 2학년이 되면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운다. 3학년이 되면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갈지, 바로 농업의 길을 걸어갈지 정하게 된다. 졸업 후 6년간(편입생은 5년) 의무영농을 하고 있으며 의무영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8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농대에서 제공한 2024년



학위를 수여받는 모습

졸업생 영농종사율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1기 2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25기 2025년까지 꾸준히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졸업생 약 7,900명 중 영농종사율은 80.9%로 나타났고, 학비지원조건 대상자 이행률은 95.6%로 나타났다.

이번 2026년 2월 27일에는 입학식을 통해 502명의 학생이 한농대의 학생이 되었다. 신입생 중 대표로 한 학생이 농어업을 끝내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선서를 진행했다. 학교 밖에서 우리나라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제27회 졸업생, 그리고 끊임 없이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한농대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실습부 안은별 기자
pararat6670@gmail.com

"한농대생, 뉴질랜드 땅에서 원예 부산물의 가능성을 증명하다"



팀 Reform의 단체사진

한-뉴 FTA 청년 창업 챌린저 3위 수상,
팀'Reform'의 원예환경시스템전공 이주원 학우의 이야기

지난 2025년,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를 잇는 무대에서 한농대 학우가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원예환경시스템전공 3학년 이주원 학우는 2025년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2기 한-뉴 FTA'에 출전해 원예 부산물 기반 친환경 단열재 아이템으로 5개 팀 중 3위를 수상하였다. 농업과 창업, 그리고 해외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교차하는 이 공모전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았다.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뉴 FTA 공모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1.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환경시스템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에 청년 창업 챌린저 2기 한-뉴 FTA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한-뉴 FTA는 말 그대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을 연계해, 뉴질랜드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챌린저(도전자) 공모전입니다. 저희 팀은 '리폼(Reform)'이라는 팀명으로, 원예환경시스템전공 졸업생 1명과 같은 전공 재학생 3명, 총 4명이 출전했습니다.

Q2. 팀의 사업 아이템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구상부터 최종 발표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A2. 처음에는 토마토, 딸기 같은 한국 원예 작물의 부산물에서 식물 섬유를 추출해 젓가락, 포크 같은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작물 줄기나 잎들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데, 그 부산물에서 섬유를 뽑아 활용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뉴질랜드에 가보니 일회용품 대체제는 이미 다양하게 존재했고, 오히려 주택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친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여서, 저희는 그 나라의 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스티로폼 단열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폼(foam)으로 아이템을 전환했습니다. 식물 섬유를 묻쳐 건물 외벽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단열재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Q3. 공모전 전체 진행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A3. 5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1차 합격 후 농정원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최종 합격 이후에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컨설팅을 받고 뉴질랜드로 출국합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고, 인터넷으로는 얻기 어려운 현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다듬습니다. 마지막 날 현지에서 발표를 한 뒤 귀국 후 다시 한번 발표를 진행해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거쳐 5개 팀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Q4.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A4.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의 맥락에 맞는 사업이어야 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이 있어야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뒷받침할 수치나 근거가 없으면 믿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문제나 제품을 개선하는 방향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Q5. 1위 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5. 1위를 한 서울시립대팀의 아이템은 농업용 바이러스 진단 키트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반복해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었고, 현재 시중의 비싼 키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명확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열재 아이템도 의미 있었지만, 건설 분야 전문가 자문이나 수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 기존 불편함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6. 팀원들과의 역할 분담과 팀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6. 팀장님이 전체적인 아이디어 방향과 사업의 수치·비용 계산을 맡아주셨고, 나머지 팀원들은 파트별로 사업계획서를 나눠 작성했고 저는 PPT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선배와 함께 나간 팀이었기 때문에 선후배 간 예의는 지키면서도, 팀장님이 유쾌하게 이끌어 주시고 후배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뱉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팀 문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7. 2026년 3기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7. 먼저 현실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아이템 사업으로 한국과 뉴질랜드 양쪽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팀원을 구성할 때는 발표에 능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한 큰 틀을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연하게 세부 조정할 수 있고,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지 대사관이나 실제 시장 환경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아이템을 다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2026년 한-뉴 청년 농산업 창업 챌린저 공고 포스터

뉴질랜드의 건축 현장에서, 토마토 줄기와 딸기 잎은 단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 있었다. 이주원 학우의 경험은 농업이 단지 생산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창업과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한농대 학우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사회부 두기동 기자
24200275@af.ac.kr



식목일, 청명의 날과 나무 심는 사람

지난 3월 31일, 교내에서 식목일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식목일은 4월 5일이었지만 주말과 겹쳐 부득이하게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식목일은 이십사절기 중 하나인 청명에 해당하는 날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명(淸明)’은 푸를 청, 맑을 명을 써 자연이 가장 생기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식목일은 1946년 광복 이후 처음 지정됐으며, 이후 공유 일 지정과 해제를 거치며 변화를 겪다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산림학과와 조경학과 학우들의 노력이 더해졌다. 식재에 사용된 수목들은 사전에 ‘가식’ 과정을 거쳐 관리됐는데, 이는 나무를 바로 심기 어려울 때 뿌리의 건조와 손상을 막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임시로 묻어두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행사 당일에는 보다 원활하게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무 심기 작업

이날 심어진 수종으로는 남천, 사과대추, 측백나무(Moonglow), 청매화, 홍매화, 버드나무(Salix) 등이 있으며, 다양한 수종을 짧은 시간 안에 식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한편,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식재 적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식목일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의 4월 5일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식목일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환경 변화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을 넘어, 자연의 가치와 숲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숲을 무조건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숲아베기와 같은 관리와 목재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앞으로는 임업 선진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식목일을 인간의 시선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식목일 행사 단체사진

편집부 박인희 기자
si.sog0i.si@gmail.com

학생회장 이야기 ‘드림’

지난 2025년 11월 26일, 제30대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드림’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본 기자는 학교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을 만나 ‘드림’의 시작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진호 학생회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0대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원예환경시스템전공 김진호입니다. 저는 한농대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곳에 알리고 싶습니다.

Q. 학생회 ‘드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드림’ 총학생회는 학우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생회입니다.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입학 초기, 학교 분위기가 제가 기대했던 대학과는 다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고자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Q. 회장님께서 1학년이던 2024년에 학생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3학년인 지금 ‘드림’ 학생회를 이끌어 가는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학년 때 저는 학생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임장’이었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잘 끝낼지에만 집중했지, 그 행사가 왜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회장이 된 지금은 무언가 기획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먼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지, 본 행사의 학우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행 가능한 기획만을 중점으로 두고 학우분들께 도움되기 위해 노력하게 됐습니다. 1학년 시절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한층 더 성장했음을 눈에 보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우분들께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은 보여주기식 학생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임기가 끝났을 때, 한농대 학우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Q. 학생회의 첫 행사인 ‘청춘드림’을 마쳤는데,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어떠셨나요?

저녁 여섯 시 반부터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초반에는 학우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부스 앞으로 줄도 생기고, 이어 들판에 깔리는 돗자리와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행사가 시작됐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지만 행사의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학우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첫 행사였기에 의미가 깊었습니다.

Q. 앞으로의 ‘드림’과 회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회장이 된다면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전공, 모든 학우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오늘의 기억이 찬란했던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 찬란한 순간에 제 노력도 조금이나마 보태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전공의 학우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총학생회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학우 여러분께 푸르른 봄과 같은 청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농대 제30대 총학생회 ‘드림’ 학생회장 김진호 회장의 인

터뷰였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학교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춘드림’ 행사를 끝마친 ‘드림 학생회’ 단체사진

이러한 활동은 각자의 작은 참여가 모여 완성된다. 마치 하나의 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각의 온기가 필요하듯, 학생회 비 또한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드림’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해지는 참여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걸음을 이어갈 김진호 회장과 학생회에 따뜻한 관심이 모이기를 바란다.

편집부 박인희 기자
si.sog0i.si@gmail.com

꿈을 빚어 미래를 만드는 양조동아리 ‘어나더 라운드’

상상이 빚어낸 발효의 미학, 만화가 지방생에서 양조가로

화폭 위에 상상을 채운듯 한 만화가 지방생의 예술적 호기심이 대한민국 양조 산업의 미래를 빚는 동력이 되었다. 술을 소재로 한 만화를 구상하기 위해 시작된 양조는 곧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역동성에 대한 매료로 이어졌으며, 이는 본교 양조동아리 ‘어나더 라운드(Another Round)’의 설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술을 빚는 기쁨은 창조의 황홀경”이라 말하는 이민기 회장의 확신은 이제 학우들과 함께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여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막걸리에서 증류주까지, 6차 산업을 향한 실무적 탐구

‘어나더 라운드’는 최근 전통주의 근간인 막걸리 양조를 마치고, 최적의 향미가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발효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조를 넘어 전공 지식을 실무에 투영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연구 중심의 과정이다. 동아리는 이를 발판 삼아 오는 2학기에는 증류주 공정 진입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와인 개발을 계획 중이다. 특히 생산과 가공,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축제로서의 양조장’을 구축하고, 주류 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생은 축제”, 정성과 과학으로 설계하는 미래 비전

이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양조를 통해 농생명 산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약간만 취하면 인생은 축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나더 라운드’는 술을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매개체로 정의한다.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역 문화와 결합하

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이들의 포부는 이제 막 힘찬 발효를 시작했다. 정성과 과학이 어우러진 청년들의 땀방울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양조 산업의 지평을 바꾸는 향기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나더 라운드’ 회장 이민기

Q1. 만화가 지방생에서 양조 동아리 회장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1. 본래 술을 소재로 한 만화를 구상하던 중, 생생한 묘사를 위해 직접 양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모가 당을 알코올로 변화시키는 발효의 역동성에 매료되었고, 제가 빚은 결과물을 동료들과 나누며 얻는 성취감은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기쁨을 학우들과 공유하고자 ‘어나더 라운드’를 설립했습니다.

Q2. 기존의 주류 관련 동아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A2. 단순히 기성 주류를 배합하는 단계를 넘어, 원료의 선정부터 미생물 배양, 발효 온도 제어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희는 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라, 최적의 향미를 구현하기 위해 변수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연구 및 생산’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3. 본교의 다양한 전공 지식이 양조 과정에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A3. 저희 동아리는 식품공학의 미생물 제어 기술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 버섯 전공자들이 모인 융합의 장입니다. 버섯 전공의 균학(菌學) 지식을 효모 관리에 접목하거나, 과수 전공의 지식을 활용해 지역 특산물 기반의 사이더(Cider)를 기획하는 등 전공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양조 실무에 투영하며 고부가가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Q4. 양조 산업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이유와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A4. 주류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고품질 프리미엄 전통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통주는 온라인 유통과 가정배달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이점이 있어 창업 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브루어리 율’ 사례처럼 생산·가공·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5. 동아리의 슬로건인 “약간만 취하면 인생은 축제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A5. 술은 과하면 독이 되지만, 적당한 풍류는 고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빚은 술이 단순히 취기를 빌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인생을 축제처럼 즐겁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의 열정, 기다림의 미학으로 빚어지다

취제를 위해 찾은 동아리실에는 은은한 누룩 향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민기 회장의 눈빛은 단순한 술꾼의 그것이 아니라,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예술가이자 치밀하게 공정을 설계하는 과학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양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내하는 과정이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본교 학우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선 ‘어나더 라운드’의 행보가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의 꿈이 향기로운 술방울로 결실을 보는 그날까지, 그들의 ‘다음 라운드’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위크부 박재현 기자
ppjh1203@gmail.com

학생이었던 자리,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 현장에서 돌아와 후배 앞에 선 김대근 강사



나타리재배학을 가르치는 김대근 강사

| “비싼 현실 수업료”로 깨달은 기본기의 가치

김 강사는 지난 20년을 “비싼 현실 수업료를 지급하며 실전 경험과 지혜를 배운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흔히 이론과 실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는 오히려 장기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지식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학교에서 듣는 이론 강의가 당장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훗날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교재 속 기본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선배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 현실적인 로드맵과 경영 중심의 교육

현재 김 강사는 버섯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타리 재배학’ 및 ‘버섯 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재배 기술 전수를 넘어, 학생들이 세운 이상적인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로드맵’으로 다듬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그는 6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을 단순 생산의 범위를 넘어선 경영 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이는 후배들이 현장에서 나갔을 때 마주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미리 대비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의 교육 철학은 실제 수업 자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동화 설비 운영, 냉각실 및 오염 관리, 효율적인 배지 제조 및 관리 등 실제 재배 현장의 필수 과제들이 교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단순한 ‘버섯 재배법’ 강의를 넘어, 병재배와 봉지재배의 생산성 차이, 노동 효율성, 시설 운영 구조까지 농장 경영 전반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업 내용은 재배 기술뿐 아니라 농장 운영과 경영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원가 계산과 감가상각, 인건비 구조, 농업용 태양광과 같은 시설 운영 요소들도 교안에 포함돼 있어, 학생들은 실제 농장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접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생산 기술 습득을 넘어, 현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 가르치며 배우는 시간, 관계에서 찾는 답

올해 처음 교단에 서게 된 김 강사는 부임 초기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후배들과 직접 호흡하며, 그는 지식의 전달보다 사제간의 신뢰와 소통이 학습의 본질임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며 스스로 더 정진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얻었다”라며,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설렘으로 매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왜를 놓치지 말라”

마지막으로 그는 농업인의 길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삶의 태도에 관한 조언을 남겼다.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이부터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이까지 각자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결국 개개인의 행복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모든 현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당부했다.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혹여 질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유와 식견을 갖춘 ‘지혜로운 농업 지성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기자 노트] 교재 속에서 발견한 실전의 가치

인터뷰 내내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가 말한 ‘비싼 현실 수업료’라는 표현에는 지난 20년간 농업 현장에서 겪어온 시행착오와 고민이 압축돼 있었다. 흔히 이론과 실재를 별개의 영역처럼 여기기 쉽지만, 그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기초 지식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후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강의실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언젠가 후배들의 현장에서 다시 떠오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인터뷰가 학우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신의 방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heejung050816@naver.com

과제에서 나만의 기록으로: 실습일지에 담긴 태도와 변화 - 제11회 장기현장실습일지 공모전 수상자들이 말하는 기록의 의미 -

장기현장실습을 떠올리면 긴 하루와 낮은 현장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하루가 끝난 뒤에도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남아 있다. 바로 실습일지를 쓰는 일이다. 많은 학생에게 실습일지는 배움의 기록이기보다 ‘제출해야 하는 과제’로 먼저 다가온다.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25년 제11회 장기현장실습일지 공모전 수상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이재형(금상), 송은희(금상), 권용석(동상)에게 실습일지는 단순한 제출용 문서가 아니었다. 지나가면 흐려질 경험을 불잡아 두는 기록이었다. 또한 반복되는 현장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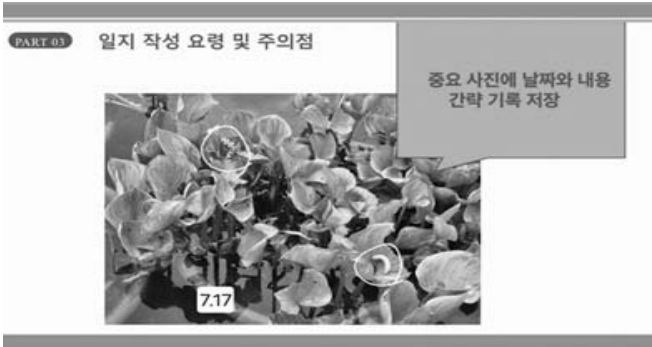
권용석 학생 실습 현장 사진

| 과제로 시작한 기록, 성장의 이정표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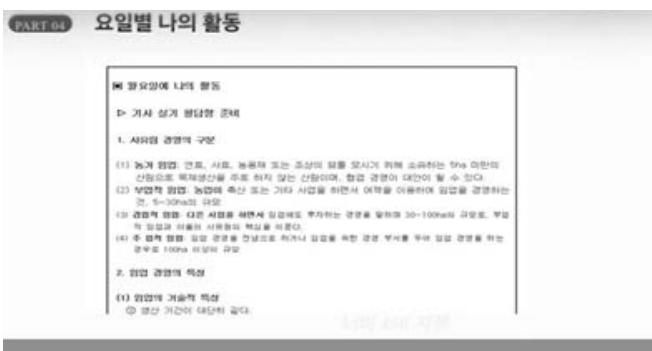
세 학생 모두 실습일지를 처음에는 ‘과제’로 받아들였지만, 기록을 이어가며 그 의미는 점차 확장되었다.

농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한 이재형 학생은 “농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사이클을 배우고 싶었다”라며, 작업의 흐름뿐 아니라 그날의 감정까지 기록에 담으려 노력했다. 송은희 학생은 “목표가 분명해지수록 실습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강조하며, 기록을 단순한 사후 정리가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실질적인 진로 고민으로 승화시킨 사례도 눈에 띈다. 권용석 학생은 초기에는 일지를 과제로 여겼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험을 되돌아보고 작업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국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송은희 학생의 실습일지 자료1



송은희 학생의 실습일지 자료2

| 반복 속 차이를 남기는 기록

이들이 기록을 이어간 방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반복 속 차이’를 발견하는 태도였다.

이재형 학생은 매일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하루는 정확성, 다음 날은 속도에 초점을 맞추며 서로 다른 기준을 세웠다. 그는 “매일 다른 기준으로 작업을 바라보며 기록을 습관화하려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송은희 학생은 사진의 크기와 배치를 정리하고 일관된 코멘트 양식을 만들어 자신만의 일지 스타일을 세워 갔다. 특히 “요일별로 활동 주제를 정해 기록의 범위를 넓히나간 것”이 기록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실습활동내역			
[오전실습]			
- 오전 버섯 수확 전 전반적인 하우스의 온도, 습도 및 CO2 농도를 확인했다.			
온도 (℃)	1번	2번	3번
	17.5	18.2	17.6
습도 (%)	95	91.7	92.4
CO2 (ppm)	-	442	465
점차 실외기온이 상승하며 하우스의 온도가 높아지는 중이며 어제 문을 열고 적엽 마무리를 하여 CO2 농도가 40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재형 학생의 실습일지 일부분

| 기록을 이어가게 한 루틴

기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사진과 메모가 공통으로 언급됐다. 작업 전후나 중간에 특이한 점이 생기면 사진을 남기고, 촬영 시각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되짚으며 떠올리는 방식이다. 이재형 학생은 일정한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사진을 남기며 기록을 습관화하려 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기록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식이었다. 권용석 학생은 현장에서는 사진과 키워드 중심의 짧은 메모에 집중해 기록의 부담을 줄였다. 그는 “퇴근 후 이를 차분히 복기하며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 과정이 자신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은희 학생은 오전 작업 사진은 점심시간에, 오후 작업 사진은 퇴근 전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규칙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기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 기록이 만든 변화

기록은 단순히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수상자들은 실습일지를 쓰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학생은 기록을 이어가며 하루의 루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하루의 흐름을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송은희 학생은 기록을 통해 더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

이 생겼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이전과 다른 점을 살피고, 사진과 메모를 남기며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권용석 학생은 실습 경험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되짚어보는 과정이, 이후 자신이 어떤 길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수상자들이 후배들에게 전한 말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실습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으로 모였다. 이재형 학생은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 배우는 실습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루하루를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실습도 더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은희 학생은 실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작 전부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내내심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무엇이든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석 학생은 적극적인 태도로 현장 경험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록은 피드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은 실습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느냐에 있다.

실습일지는 처음부터 잘 써지는 글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수상자들의 이야기는 분명한 힌트를 건넨다. 기록은 대단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줄, 그리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록은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한 줄 한 줄은 어느 순간, 실습을 견디는 시간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는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heejung050816@naver.com

제16기 한농대 알리미 임명… 콘텐츠 제작 활동 본격 시작



한농대 16기 알리미 임명장 수여식

지난 4월 9일 오전 9시 20분, 대학 본부 3층 총장실에서 제16기 한국농수산대학교 알리미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임명된 학생은 신민아(화훼 전공 3학년), 유찬욱(채소 전공 1학년), 윤세현(과수 전공 3학년), 정정아(식량작물 전공 3학년), 홍현기(원예환경시스템 전공 1학년)로 총 5명이다.

이번 알리미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담당 관계자는 서류 심사에서는 지원 동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콘텐츠 제작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면접 심사에서는 활동의 진정성과 대학 이해도, 의사 표현력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알리미들은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콘텐츠 제작 교육과 영상 제작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뒤 자율적인 주제로 대학 소개 글, 브이로그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달 학교 공식 SNS에 업로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 공식 홍보 영상 출연, 인터뷰 및 프로필 촬영, 캠퍼스 투어 인솔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농대 알리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6기 알리미로 선정된 홍현기(원예 환경 시스템 1학년) 학생과 윤세현(과수 전공 3학년)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Q. 알리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윤세현: 신입생 시절, 학교생활을 하며 직접 겪었던 기숙사 정보나 사소한 궁금증들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입학 희망자분이 제가 올린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깨닫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실습 과정을 브이로그나 릴스 등 짧은 영상으로 기획해 제작하면서, 우리 학교에서의 즐거운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제가 가진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해 학교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학생이 저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현기: 저는 평소 영상 시청을 즐길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을 정도로 영상 기획과 제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저의 영상 제작 경험과 특기를 살려, 한농대를 예비 신입생들과 대중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알리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란 매개체로 우리 학교를 빛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 알리미로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윤세현: 두 가지 활동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업농의 관점에서 본 학교생활 인터뷰’입니다. 후계농이 아닌 맨땅에서 시작하는 창업농의 입장에서,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와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릴스 제작’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우리 학교만의 역동적이고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감각적인 짧은 영상에 담아 예비 학우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싶습니다.

홍현기: 저는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탐방 영상’이나 한농대생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입학 전 한농대에 대해 알아볼 때, 학교의 공식적인 정보 외에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실습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가 다소 부족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습 현장에서의 모습이나 기숙사에서의 일상 등, 예비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습니다.

Q. 알리미로서 소개하고 싶은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윤세현: ‘최고 수준의 실습 환경’과 ‘학생 중심의 혜택’입니다. PTC(첨단 온실)나 말 실습 동처럼 미래 농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전 능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맛있는 학식은 물론 국비 지원을 통해 학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현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동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목표를 나누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밑거름이 된다고 자부합니다.

Q. 앞으로의 알리미 활동을 위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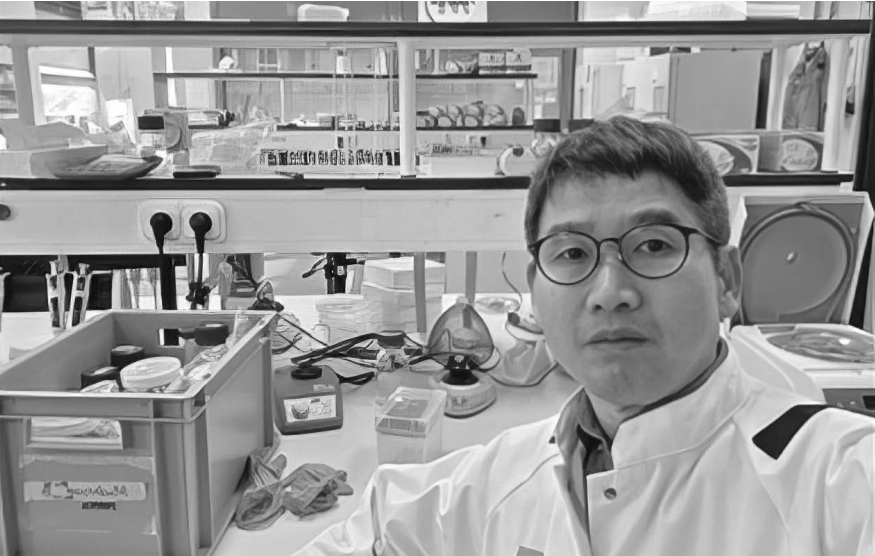
윤세현: 알리미 지원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학교생활을 누구보다 즐겁게 즐기는 모습과 함께 열정 가득한 예비 농부로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우리 학교를 꿈꾸는 많은 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알리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현기: 아직 영상 제작 실력이 전문가처럼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미 활동을 통해 저 역시 부족한 점을 배우고 채워나가며, 한농대의 매력을 제 방식으로 솔직하고 재미있게 담아내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리미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매달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한농대 알리미 명칭 공모가 진행되어 홍보대사로서의 공식 명칭이 생기는 부여될 예정이다. 제16기 알리미가 보여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해본다.

문화부 이예강 기자
1430lee@naver.com

버섯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로 - 류재산 교수 연구년 현장



와게닝겐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마치고 정리하는 류 교수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올해 3월부터 1년간 와게닝겐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버섯전공 류재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네덜란드 현지에서 전해온 류 교수의 첫마디다.

한국농수산대학 작물산림학부 버섯전공 류재산 교수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에서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기술과 분자가위 기술 연수를 주제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와게닝겐 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환경 분야에서 세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명문 대학으로, 농업 전공자들 사이에서 ‘꿈의 대학’으로 불린다. 특히 버섯 육종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선도해온 대학으로, 수천 종에 달하는 버섯 균주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즉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계 농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또한 와게닝겐 대학교는 버섯균류의 유전학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농업 부산물을 배지로 활용해 버섯균사체를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개발하는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류 교수는 바로 이곳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연구년’이란 대학 교수가 강의 의무에서 벗어나 연구·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간을 말한다. 대학에서는 이를 제도화하여 ‘연구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재직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이 제도는 주로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학문적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에 네덜란드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류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류 교수는 현지에 대해 “네덜란드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독보적인 농업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농업의 GDP 기여도는 약 1.6%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농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즉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은 배울 점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네덜란드 버섯 산업은 생산량의 80%를 수출할 정도로 생산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송이를 넘어 느타리와 표고버섯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버섯 산업 종사자는 약 5만~6만 명 수준이지만, 높은 기계화·자동화 비율과 전문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1인당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 버섯 산업 박람회인 ‘Mushroom Days’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네덜란드 스펜르토헤른보스의 브라반트할렌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통상 80개국 이상에서 3,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약 100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버섯 업계 최대의 국제 행사로, 2023년 제36회 행사에는 83개국에서 4,555명이 다녀갔다. 류 교수 역시 이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며 세계 버섯 산업의 최신 흐름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류 교수는 이곳에서 ‘버섯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기술과 분자가위(유전자 편집) 기술 연수’를 주제로 연구 중이다. 생소한 전문 용어가 많은 만큼, 류 교수가 연구 중인 두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세계 최대 버섯산업박람회에 참가한 류 교수

첫 번째는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기술 연구’이다. 리스테리아균은 발열·근육통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냉장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저온 보관만으로는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 버섯 재배 환경에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 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이

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류 교수는 “유럽에서도 리스테리아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선진농장을 찾아다니면서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노하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라고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분자가위(유전자 편집) 기술 연수다. GMO 기술과 혼동할 수 있지만, 외부의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하는 GMO와 달리, 분자가위는 작물 자체가 가진 내부의 유전자를 흔적 없이 정밀하게 편집하는 기술이다. 분자가위는 이미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버섯 분야에서도 수확 후 저장성을 높인 양송이 품종과 갖의 색깔이 다른 느타리 품종 등이 이 기술을 통해 탄생했다.

이처럼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기술 연구와 분자가위 기술 연수를 버섯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에서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류재산 교수는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하여 학교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머나먼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류재산 교수의 연구년을 우리 학교 버섯 전공 학생들과 함께 응원하며, 2027년에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기를 바란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jja050915@naver.com



2026년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협정식



2026년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협정식 현장

지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장기현장실습생 (2학년) 및 현장 교수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협정식이 대강당과 각 전공별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장기 현장실습은 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 경영체의 현장 교수들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실습 기간은 총 8개월로 3월~10월(계절학기 운영 시 3~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장기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협정식에는 총장을 비롯한 2학년 학생 347명과 현장 교수 86명이 참석하였고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축산학부 학생들 및 기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대체하였다.

내빈으로는 이주명 총장을 비롯하여 장기현장실습센터장, 김효철 교수, 외부 초빙 강사 1명이 장기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참석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후 1시부터 30분간 우수 현장 교수 시상 및 총장의 인사말과 강연, 장기현장실습 제도개선 방향과 달라지는 제도 교육,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안전보건 진흥원에서 주관한 '25년도 안전 점검 컨설팅 결과 공유(전공 특성 위험 요인별 미흡, 개선 우수사례)', 이어지는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4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교육 등이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

었으며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는 전공별 강의실로 이동하여 전공별 협정식이 진행됐다.

누구에게는 8개월이라는 실습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몸 건강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내외 선진 경영체 및 기관에서 다양한 현장 실무를 배워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본다.

실습부 김현수 기자

khs030422@naver.com

장기현장실습 준비 A to Z -막막한 실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장기현장실습을 앞둔 1학년 학생들에게 '실습'은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느껴지는 과정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설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본지는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과정 전반을 정리해,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나에게 맞는 실습지 선택하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지 선택이다. 실습지는 단순히 유명한 곳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 본인의 전공과 관심 분야, 그리고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배 중심 경험을 쌓고 싶은지, 연구나 유통 분야까지 경험해보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나 농가의 특성을 미리 조사해보는 것도 필

요하다. 실제 어떤 작물을 다루는지, 어떤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지 파악해두면 실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적응도 훨씬 수월해진다.

■ 실습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

다음으로는 실습 준비사항이다. 기본적인 준비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실습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예의와 성실한 태도는 실습 환경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큰 영향을 준다.

■ 미리 준비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전공 지식 정리도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가면 현장에서 접하는 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 실습 경험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작은 준비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실습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도 한다.

■ 실습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실습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실습 중 겪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이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크부 나은빈 기자

25210105@af.ac.kr

국립농업기관 실습생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국립농업기관 실습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연구 중심의 환경에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이 지원을 고민하지만,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현재 실습을 진행 중인 2학년 박은서(원예환경시스템전공), 박혜민(채소전공), 홍채빈(식량작물전공) 학생들과 실습을 마친 3학년 우리희망(과수전공) 학생이 참여해, 실습 과정과 느낀 점,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 배 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습했던 우리희망 학우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 기관을 소개해주세요.

희망: 안녕하세요, 과수학과 3학년 우리희망입니다. 나주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에서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해당 기관은 주로 배, 감, 매실을 연구하는 곳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블루베리를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Q2. 실습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경험하셨나요?

희망: 제가 속한 부서는 감과 블루베리를 함께 연구하는 부서였습니다. 감나무 전정과 유인, 재식 작업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블루베리 전정, 재식, 과실 특성 조사, 종자 채취 및 파종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희망: 블루베리 종자 채취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수확 후 품종별로 약 30개씩 종자를 채취해 종자 수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는데, 품종 수가 많고 블루베리 종자가 매우 작아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Q4.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희망: 기관 특성상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습생의 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되다 보니 직접적인 작업 기회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의 실제 재배 방식과 연구 목적의 재배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어, 향후 농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Q5.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희망: 본인이 그리고 있는 진로 방향에 따라 기관과 농가 중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나 실험에 관심이 있다면 기관 실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반면 농가는 재배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작목이 명확한 경우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몸 건강하,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작물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실습중인 홍채빈 학우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 기관을 소개해주세요.

채빈: 안녕하세요, 식량작물전공 2학년 홍채빈입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맥류작물 중 보리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Q2. 실습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경험하셨나요?

채빈: 실습 기간 동안 보리 시료를 활용한 추출 및 유전자 분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재료 준비와 시약 제조, 기구 관리 등 기본적인 실험 업무를 경험하며 전공 이론을 실제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 능력과 함께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채빈: 전기영동 실험을 통해 증폭 결과를 직접 확인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원인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시약 비율과 실험 조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복 실험 끝에 선정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고, 이를 통해 정확성과 꼼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Q4.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채빈: 실험 장비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초반에는 작업 속도가 느리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5.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채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초반에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습중인 박은서 학우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 기관을 소개해주세요.

은서: 안녕하세요. 원예환경시스템전공 2학년 박은서입니다. 저는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에서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개발과는 첨단 공학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 시스템을 지능화하고, 스마트팜의 최적 환경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Q2. 실습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경험하셨나요?

은서: 3가지 정식 방법에 따른 완숙 토마토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동일한 환경 제어 조건에서 정식 방법의 차이가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1회 생육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딸기의 생육과 육묘 과정, 토마토 절기부터 다음 작기 준비까지 실제 재배 전반에 걸친 업무를 연구원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은서: 데스크메카가 부착된 휴대폰을 활용해 작물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촬영한 영상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사진만으로도 생육 조사가 가능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1학년 수업에서 관련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니 연구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Q4.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은서: 실습 초반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다 보니,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얻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후에는 박사님과 연구원분들께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실무와 연구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Q5.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은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전문가들로부터 깊이 있는 이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실습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그 답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전문적인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습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습중인 박혜민 학우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 기관을 소개해주세요.

혜민: 안녕하세요.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채소전공 2학년 박혜민입니다. 저는 무·배추 연구실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는 무와 배추의 내건성과 병원균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육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실습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경험하셨나요?

혜민: 주로 무와 배추 교배를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배 과정에 참여하면서 재배 관리와 교배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집중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의 차이를 다분광·초분광 촬영을 통해 비교하고, 병해를 입은 식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관찰하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균을 직접 배양하고 현미경으로 형태를 관찰하거나, 배지를 제조하는 등 다양한 실험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혜민: 직접 소포자 배양과 초분광·다분광 촬영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포자 배양은 꽃이 피기 전 봉오리를 채취해 배양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조직배양과는 다른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 유전자가 고정된 계통의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초분광과 다분광 촬영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활용해 식물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식물을 ‘영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련 학회도 존재한

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Q4.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혜민: 저는 평소 과채류 중심으로 농업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무와 배추와 같은 엽근채를 배우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재배 방식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연구사님과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엽근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도 어떤 부분을 질문해야 할지 몰랐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Q5. 장기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혜민: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며 실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교수님들께서

도 학생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립농업기관에서의 실습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농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연구 중심의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농업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습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작은 준비와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현장에서의 경험은 생각보다 더 큰 배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워크부 나은빈 기자
25210105@af.ac.kr

1학년들을 위한 실습장 선택 가이드(작물·산림학부)

이번 학보에서는 작물산림학부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들에게 적합한 실습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과 1년 전 실습을 진행하였던 3학년 학생들의 실습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며 실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현서: 안녕하세요. 저는 식량작물전공 3학년 박현서입니다.

김병기: 안녕하세요. 저는 버섯전공 2학년 실습생 김병기입니다.

Q. 실습장에 대한 소개와 주로 담당하였던 실습 업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현서: 저는 충남 서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이란 대규모 간척지를 보유한 농장에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들만에서는 다른 실습장과 동일한 현장 일도 진행하였고, 대표님께서 쌀에 관한 육종 연구를 좋아하셨기에 옆에서 연구 보조 및 쌀 유통, 배달, 수출 등의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 전경



박현서 학우가 실습하던 모습

김병기: 제가 실습 중인 실습장은 충남 부여 홍산면에 위치한 부여 ‘버섯뜰농장’입니다. 주로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배지 제조, 종균 접종, 배양 후 생육 관리 및 수확)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버섯뜰농장 전경



김병기 학우가 실습중인 모습

Q. 두 학우는 어떤 방법으로 실습장을 선택하셨나요?

박현서: 먼저 실습에 대해서는 전공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에게 실습장에 대한 정보와 실습 경험에 대해 여쭙보며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만을 실습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통해 선진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능력을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을 실습장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저는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저의 진로에 맞는 적합한 농장을 추천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고, 아무런 농업 기반이 없는 저로서 버섯 재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실습을 하며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농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 배운 점들과 자신만의 실습일지 작성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현서: 실습을 통해 직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농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나만의 실습일지 작성 방식은 매일 일하는 중간에 무슨 작업을 하는지 사진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김병기: 저는 실습을 하면서 ‘일’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남들과 소통하고 협동하며 목표했던 것들을 끝낸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3D 업종에 속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따라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하기 전에는 ‘같이 일을 한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이번 실습을 계기로 협동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내년에 실습을 가게 될 1학년 후배들에게 실습 관련 조언이나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박현서: 실습은 어디를 가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 잘 적용해 나가며 몸 다치지 말고, 무사히 실습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다는 생각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을 채워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습에 임한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생활과 바쁜 실습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두 학우에게 감사하며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한다.

실습부 김현수 기자
khs030422@naver.com

농사는 혼자 짓지 않는다: '재배'를 넘어 '경영'으로 나아가는 두 졸업생의 이야기 - 작물은 땀으로, 경영은 관계로... '함께'의 가치 -

농업은 흔히 땅과 기술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들어서면, 작물을 키우는 ‘재배’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사람을 조율하고, 시장을 읽고, 자신의 방향을 판단해야 하는 ‘경영’의 감각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 가족농의 기반을 이어가고 있는 두 졸업생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깊어지는 농업 경영의 시선과 ‘함께’의 가치를 들여다본다.



윤명훈 동문이 포도 하우스에서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 6년 차 윤명훈 동문: "농사는 정돈된 낭만이 아닌, 치밀한 타이밍의 현장"

2020년 과수학과를 졸업한 윤명훈 동문은 현재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포도 농사(거봉, 샤인머스켓)를 짓고 있다. 조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농업 기반 위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가 처음 마주한 현장은 SNS 속 깔끔하게 정돈된 농장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 동문은 “실제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타이밍이 생명인 곳이었다”라며 “일이 조금만 밀려도 다음 일정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

라고 말했다. 그에게 졸업 직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과제는 ‘사람과의 조율’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생기는 판단과 방식의 차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재배 기술을 익히는 일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직접 납품하며 소비자와 가까이 호흡하고 있다. 그는 “아직은 안정 계도에 올랐다고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변동성을 몸소 겪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의 주도권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 15년 차 민병선 동문: "독립 경영의 무게 속에서 브랜딩에 눈을 뜨게 되었다"

2011년 특용작물학과 버섯전공을 졸업한 민병선 동문은 졸업 후 1년간 경기농업기술원에서 현장을 경험한 뒤, 부모 세대의 기반이 있고 지역 특산물의 시장성이 맞아떨어진 천안시에 정착해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농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책임 아래 농장을 운영하게 된 시기였다. 민 동문은 “그때부터 농업을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사업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라며, “독립 경영의 무게를 체감하면서 브랜딩에 눈뜨게 됐다”라고 회상했다. 생산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정 거래처가 자리 잡으면서 판매에 대한 불안보다 ‘생산’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경영의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다수확’에 무게를 뒀다면, 15년이 흐른 지금 그의 시선은 ‘품질과 선별, 브랜딩’으로 향해 있다.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재배를 넘어 관계와 판단으로 이어지는 길

경력의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두 동문은 농업이 결코 혼자



민병선 동문이 운영 중인 농장의 모습

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을 버티게 하는 힘 역시 결국 사람과의 연결에서 나온다는 점도 같았다.

윤 동문은 농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에서 느꼈던 고립감을 4-H 활동을 통해 털어냈다고 말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들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농업을 이어가는 데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민 동문 역시 4-H 활동을 통해 같은 길을 걷는 청년 농업인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혔다. 농번기에는 교육이나 행사를 병행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결국 현장을 오래 버티는 힘이 됐다고 돌아봤다. 농업은 개인의 노동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준비된 고민이 시행착오를 줄인다."

두 졸업생은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 먼저 윤명훈 동문은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정

착할 지역에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미리 고민하고 조사한 사람만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미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병선 동문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크게 시작하려 하기보다,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며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결국 두 사람이 후배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방향을 미리 고민하고 한 걸음씩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두 동문의 이야기는 농업이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며, 그 과정을 꾸준히 견뎌낼 때 비로소 자신의 길이 만들어진다. 겉으로는 고독해 보여도, 실제 농업은 결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heejung050816@naver.com

아버지도, 아들도 한농대… 대를 이은 농업의 길 - 부자(父子) 동문의 이야기를 듣다 -

우리 한농대에 부모와 자녀가 본 학교를 졸업 후 함께 농업에 종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후계농이나 가족농업은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본 사례는 꽤나 희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부자(父子) 졸업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다.



강화드림 대표 한성희 졸업생

Q. 부자농부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1기 졸업생이신 한충식 선배님의 아들, 식량작물학과 12기 졸업생 한성희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저는 농업회사법인 강화드림을 운영하며 약 6만 평 규모의 벼와 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강화드림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 ‘초록통쌀’을 중심으로 가공과 유통까지 확장한 6차 산업형 농장입니다. 초록통쌀을 활용한 죽과 간편식(HMR) 제품을 개발해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은 재배를 넘어 가공·유통·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농업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한국농수산대학교 1기 졸업생이셔서 자연스럽게 한농대란 곳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진로를 고민하다가 고향인 강화도에서 농업으로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삶의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해외의 장기현장실습 제도는 글로벌 농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지원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스스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의 농업 경영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선배님께서는 대선배님이신 아버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 중이신데, 함께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장, 단점이 있나요?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재배 기술과 현장 판단 능력은 책이나 교육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반면 세대 간 관점 차이에서 오는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공·유통·브랜드 등으로 확장된 농업을 지향하는 반면, 아버지 세대는 생산 중심의 농업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안정성과 새로운 농업의 확장성이 결합되면서, 지금은 그 차이가 시장에서 강화드림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Q. 함께 종사하고 계시는 아버지님께 가업을 어떻게 승계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 농장을 물려받았다고보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농업을 이어받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농대를 졸업한 이후 바로 농장에 합류해 초기에는 재배 중심의 업무를 배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역할을 넓히면서 유통과 가공 분야를 맡아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록통쌀 개발과 가공식품 사업은 기존 농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한 시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져주셨다면, 저는 그 위에 가공과 유통을 더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고, 현재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승은 단순한 승계가 아니라, 기존 기반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버지께서 학교 다니셨을 때와 선배님께서 학교에 다니실 때 어떤 차이가 느껴셨나요?

아버지 세대는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산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후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경영, 유통, 가공까지 확장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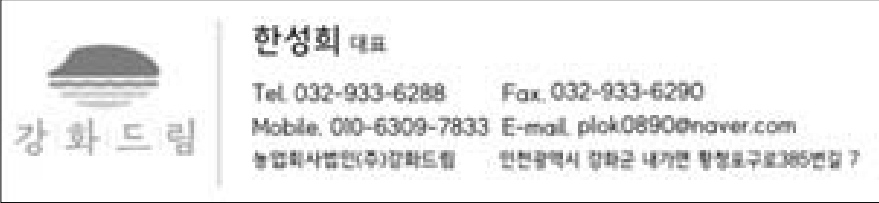
특히 해외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의 실습을 통해 대규모 복합영농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농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 교육도 생산 중심에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Q.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학교생활 3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는 데 그치지보다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졸업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선배 농가 견학이나 현장 실습 기회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은 재배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하기에 후배들께서 작물 생산과 더해 판매와 시장을 함께 고민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농업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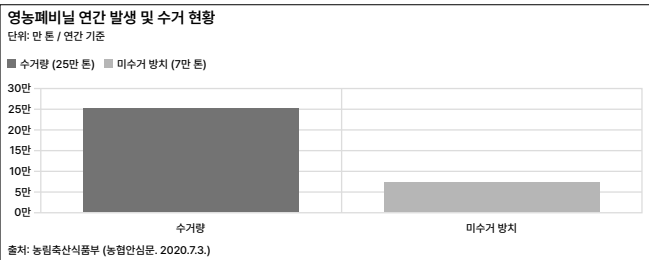
강화드림 명함

바쁜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한성희 졸업생에게 감사한다.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확장한 6차 산업형 농업 모델을 직접 일하며 한농대 선배들이 이뤄온 성과는, 후학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사는 부모님과 함께 농업을 이어가거나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편집부 박인희 기자
si.sog01.si@gmail.com

버려지는 것의 두 얼굴 -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무엇이 진짜 순환인가 -

벼짚으로 지붕을 엮고,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만들었다. 거름대(삼대 줄기)로는 담을 엮고, 쪽정이는 아궁이에 넣어 불을 때었다. 수확이 끝난 뒤에도 남은 것들은 쌓아두었다가 태우고, 그 재를 다시 밭에 뿌렸다. 우리 조상들은 논 하나에서 난 것들을 끝까지 다 썼다. 버리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풍경은 다르다. 해마다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생겨나지만, 이 중 약 7만 톤은 수거조차 되지 않고 농지 한켠에 그대로 쌓인다. (출처: 농업축산식품부) 버섯 농가에서 수확 후 남은 폐배지는 연간 167만 톤에 달한다. (출처: 건국대학교 연구보고서, 2006)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줄기, 뿌리, 못난 이 농산물들이 조용히 쌓여간다.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 및 수거 현황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이름으로 농업부산물에 새 가치를 입히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업사이클링이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탄소를 추가로 배출하고, 어떤 것은 탄소를 가두어 버린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농촌 자원순환의 핵심이 되었다.

- 탄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탄소의 이동 경로를 알아야 한다. 식물은 자라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해 몸

속에 탄소로 저장한다. 이것이 광합성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벼짚, 나뭇가지, 과일 껍질-이 모든 것의 몸속에는 한때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유기물들은 결국 썩거나 태워지면서 그 탄소를 다시 CO₂ 형태로 공기 중에 돌려보낸다.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에 묻히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결과적으로 초기에 흡수했던 이산화탄소가 모두 방출된다. (출처: 농촌진흥청·코넬대 공동연구, 2021) 이것이 자연의 탄소 순환이다. 들어온 만큼 나가니, 이 자체로는 탄소 증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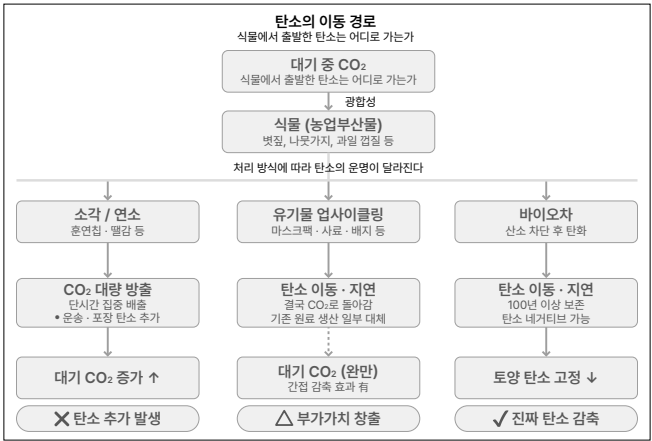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가.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수백만 년에 걸쳐 땅속 깊이 묻혀 있던 탄소-석탄과 석유-를 인간이 짧은 시간에 꺼내 태우면서 대기 중 CO₂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삼림파괴로 흡수 능력은 약해지고 공업 발달로 배출량은 늘어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균형이 깨진 시대에, 농업 현장에서도 이제 유기물을 태우는 일이 마냥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조상들이 밭에서 재를 뿌리던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탄소 배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업사이클링이 항상 친환경은 아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최근의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사례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사과 농가에서는 봄마다 가지치기를 한다. 잘라낸 나뭇가지는 농지에서 자연스럽게 썩는다. 그런데 최근 이 나뭇가지를 잘게 잘라 건조하고 소포장해 캠핑장에 ‘사과나무 휴연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이다. 그러나 탄소의 흐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뭇가지를 수거하고, 건조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추가 에너지가 쓰이고, 이 상품의 목적은 결국 ‘나무를 태우는 것’이다. 땅에서 천천

히 썩어 탄소를 조금씩 내보낼 것을, 더 많은 탄소를 쓰면서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셈이다. 수익성과 친환경성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다.

반면 탄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버려지던 키위 주박-키위를 짜고 남은 찌꺼기-에서 항산화·미백 성분을 밝혀내고 이를 마스크팩 원료로 상품화했다. (출처: 경남일보, 2025.9.7.) 이 경우 유기물이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되면서 화학 합성 원료 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일부 줄이는 효과를 낸다. 직접적인 탄소 감축은 아니지만, 새로운 원료 생산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



탄소의 이동 경로

탄소를 가두는 방법 - 바이오차

농업부산물 자원순환에서 진짜 탄소 감축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바이오차(Biochar)’다. 바이오차는 벼짚, 왕겨, 나뭇가지 같은 농업부산물을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만드는 숯의 일종이다. 일반 소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고체 형태로 ‘가두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차는 유기물 속 탄소를 안정된 고

형물로 고정하며, 토양에 투입하면 1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 기존 퇴비화 방식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될 수밖에 없지만, 바이오차는 탄소를 대기로 내보내지 않고 장기간 토양에 저장한다. (출처: 카본사우루스, 2025.9.) 조상들이 태운 재를 밭에 뿌린 것도 같은 발상의 원형이었다. 다만 지금의 바이오차는 탄소를 단순히 재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숯 형태로 토양 속에 가두어 버린다. 바이오차는 탄소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 즉 대기 중 탄소를 실제로 줄이는 효과가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출처: 농촌진흥청·코넬대 공동연구, 2021) 탄소의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셈이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감귤 부산물의 버섯 배지 활용, 참당귀 잔뿌리의 발효비료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웹진 그린매거진, 2024.1.)

조상들이 벼짚 하나 버리지 않았던 지혜는 옳았다. 그러나 그 지혜를 오늘에 적용할 때는 한 가지를 더 몰아야 한다. ‘이 탄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케팅 문구가 붙는다고 해서 모든 업사이클링이 지구를 위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 수익성과 친환경성은 겹칠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농업부산물이 다시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탄소를 배출하는지, 이동시키는지, 아니면 가두는지다.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과, 그 과정에서 탄소를 가두는 것 -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이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이 내놓을 수 있는 진짜 답이다. 그 출발점은 결국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정말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사회부 안세희 기자
24200379@af.ac.kr

농업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가이드, ‘똑똑청년농부’

영농 창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청년 농업인 전용 허브, ‘똑똑청년농부’**를 소개한다.



농업으로의 복귀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초기 자본의 한계와 복잡한 행정 정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전용 포털인 ‘똑똑청년농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정부와 지자체에 산재한 방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며, 예비 청년 농업인이 영농 준비 단계에서 겪는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착지원금부터 창업 자금까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해법 제시

‘똑똑청년농부’ 포털의 가장 큰 강점은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구체

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11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는 창업 자금(융자) 정보는 포털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션이다. 이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현대 농업 환경에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법인 설립부터 맞춤형 기술 교육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정보의 나열을 넘어, 포털은 예비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우선 지원 및 정책 메뉴에서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특화 사업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비 농업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농업 법인 설립 절차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방안 역시 창업 가이드를 통해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체계적이다. 농촌진흥청의 고도화된 농업 기술 자료와 맞춤형 교육 일정을 공유하는 교

▶정보력이 곧 영농의 경쟁력, 선제적인 정책 활용이 성공의 열쇠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똑똑청년농부’ 포털은 청년 농업인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는 강력한 전략 도구다.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비 청년 농업인들은 해당 포털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농촌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장에서 지속 가능한 영농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기 기대한다.

위크부 박재현 기자
ppjh1203@gmail.com

화훼전공자가 알려주는 ‘실패 없는’ 봄꽃 선물 가이드

올해 봄은 유독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봄은 일 평균 기온이 5℃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 날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서울 벚꽃 개화일이 4월 1일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3월 19일부터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비해 3주가량 이른 시기에 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꽃구경을 나가보면,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건지 꽃 구경을 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인파가 가득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에 꽃잎이 질까 봐 발걸음을 서두르다 보면, 정작 꽃 한 송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쳐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로 조금 다른 제안을 하려 합니다. 집 안에서 봄꽃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꽃에게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화분 하나만 들여놓아도, 다양한 색채와 생명력이 공간 전체를 바꿔줍니다. 화훼를 전공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전공자가 추천하는 봄꽃 BEST

칼라(Calla) 꽃말: 순수, 열정

어릴 때 꽃을 그리라고 하면 동그라미에 꽃잎만 그렸던 분들에게는 낯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깔때기처럼 부드럽게 말린 잎이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꽃이 아니라 ‘불염포’라고 불리는 잎이 변형된 것입니다. 진짜 꽃은 그 안쪽에 도톰하게 솟아 있는 막대기 모양의 유수화서입니다. 알고 보면 더 신기하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꽃입니다. 칼라는 웨딩 부케로도 자주 쓰일 만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꽃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특별한 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더없이 잘 어울립니다.



칼라

다알리아(Dahlia) 꽃말: 화려함, 감사

겹겹이 쌓인 꽃잎이 화려한 다알리아는 꽃다발에 넣었을 때 존재감이 납니다. 멕시코 원산으로, 붉은색·노란색·분홍색 등 화색도 매우 다양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딱 좋은 꽃입니다.



다알리아

아네모네(Anemone) 꽃말: 기대, 덧없는 사랑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바람의 딸’을 뜻합니다. 봄바람을 타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모습이 꽃말과 꼭 닮아 있습니다. 빨강, 보라, 흰색 등 다채로운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절화로 주로 유통되어 꽃병에 꽂아두기 좋습니다.



아네모네

라널큘러스(Ranunculus) 꽃말: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겉보기엔 장미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300장이 넘는 많은 꽃잎이 겹겹이 쌓인 꽃입니다. ‘봄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꽃이라 ‘매력, 매혹’이라는 꽃말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병에 꽂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봉오리가 점점 피어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 받는 사람에게 더 오래 기쁨을 주는 꽃입니다.



라널큘러스

이 외에도 추천하는 봄꽃으로는 메리골드, 델라포디움, 안개초, 토레니아, 맨드라미, 베고니아는 봄부터 여름 사이 화원이나 마트 화훼 코너에서 화분 형태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화입니다. 앞서 말한 꽃들은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PTC 온실에서 화훼 전공생들이 직접 재배 중입니다.

선물받은 꽃, 더 오래 보려면?

첫째. 물 관리: 꽃을 받자마자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져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둘째. 물 교체: 꽃병 물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탁해지면 세균이 번식해 꽃이 빨리 시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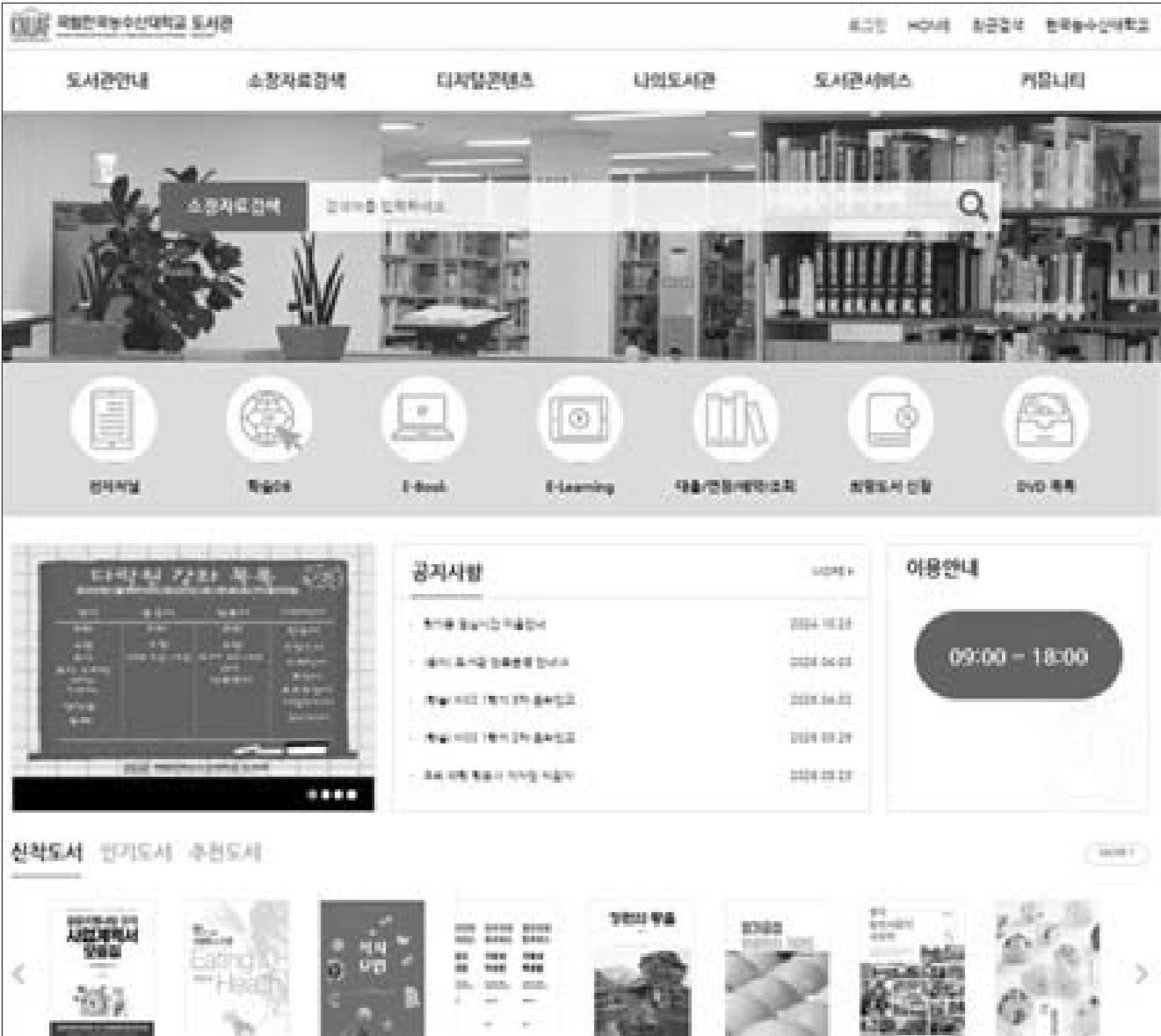
셋째. 위치: 직사광선과 에어컨·난방기 바람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꽃은 열에 약합니다.

넷째. 잎 정리: 물에 잠기는 줄기 아래쪽 잎은 제거해 주세요. 물속 잎이 썩으면 꽃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진 꽃집인데요, 물 대신 설탕물이나 스프라이트를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면 꽃의 절화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설탕이 꽃의 양분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스프라이트는 물 3 : 스프라이트 1 비율로 섞어주면 적당합니다.

꽃을 선물한다는 건 마음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꽃구경 명소를 찾아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꽃집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집에 들여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일상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누리기에 조금 아깝지 않나요? 요즘 지쳐 보이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연인 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꽃 한 송이를 또는 화분을 건네보세요. 예기치 못하게 받은 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하게 닿기도 하니까요.

사회부 안세희 기자
24200379@af.ac.kr

과제 시즌, 도서관이 답이다… 한농대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화면

최근 과제 제출 기간이 다가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많지만, 시간은 부족한 요즘, 우리 대학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자책부터 학술 논문, 외국어 강의, IT 교육 콘텐츠까지. 학교 인증만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한다.

전자 잡지 서비스 모아진은 시사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패션, 여행 등 국내 잡지 215종을 제공한다. 짧은 공간 시간이나 이동 중에도 모바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기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확실한 교양/정보 습득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교보문고 eBook 서비스는 일반 도서뿐 아니라 자격증 수험서, 자기계발서, 소설 등 폭넓은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원하는 책을 온라인으로 대출할 수 있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기간 종료 후 자동 반납 기능이 적용되어 연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외국어 학습 플랫폼 다락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강의를 제공하며, 별도의 수강료 부담 없이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꾸준한 자기 계발 수단으로 활용하기 좋다.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아이티고**를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과정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모바일 앱 개발, IT 실무 강화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마련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플랫폼이다. 최신 강의를 분기마다 업데이트하기에 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과제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학술 자료는 DBpia와 KISS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학술지를 검색할 수 있어 전공 심화 학습은 물론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도 유용하다. 시험기간 참고 자료를 찾거나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때도 활용도가 높다.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학생

학교가 마련한 지원 제도는 알고 활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커진다. 익숙하게 지나쳤던 도서관 홈페이지 속 서비스들이 이번 학기 학습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도서관은 더 이상 책장 사이에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새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af.ac.kr)’에 한 번 접속해,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직접 찾아 활용해 보길 바란다.

문화부 이예강 기자
1430lee@naver.com

2026년 1분기 교수동정

▶ 양주환 교수(교양학부) 정년퇴직

양 교수는 2026년 2월부터 정년퇴직했다. 2008년 한농대에 부임해 ‘농수산창업 및 마케팅’ 강의를 맡아온 양 교수는 17여 년간 학생들과 함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퇴직 이후에는 한농대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양 교수는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농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퇴직 인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길 기원합니다”며 퇴직 인사를 전했다.

▶ 정달상 교수(농수산융합학부-수산양식전공) 국무총리표창

정 교수는 2026년 4월 1일 수산업, 어촌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해양수산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에 더불어, 수산업계 현장에서 활약하는 우리 졸업생들 덕분에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농대 수산학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산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승희 교수(원예학부-과수전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장 임명

김 교수는 2026년도 1월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학회장으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먼저 한농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돼서 기쁘고, 본 학회는 농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와 학문 교류의 중요한 축이므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류재산 교수(작물산림학부-버섯전공) 연구년제

류 교수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네덜란드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버섯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스테리아 위생 관리 기술과 분자가위(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를 주제로 연구 중인 류 교수는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하여 학교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연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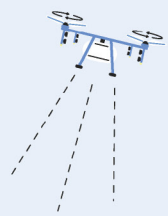
▶ 이종원 교수(원예학부-원예환경시스템전공) 전공서적 출간

이 교수는 2026년 1월 25일 최은영, 이정현, 최기영 교수와 함께 공저한 전공서적 『시설원예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출판문화원에서 출간했다. 이 교수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기존 전공서적을 최신 스마트팜 현안 자료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학생들이 현재에 맞는 시설원예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전했다.

▶ 권형근 교수(작물산림학부-산림전공) 도서 출간

권 교수는 지난 2024년 9월 『임도의 과학적 근거』를 출판사 지음에서 출간했다. 숲길(임도)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 책에 대해 권 교수는 “임도가 ‘산림 파괴 시설’로 잘못된 정보 보도들이 증가해, 이 책을 통해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jja05091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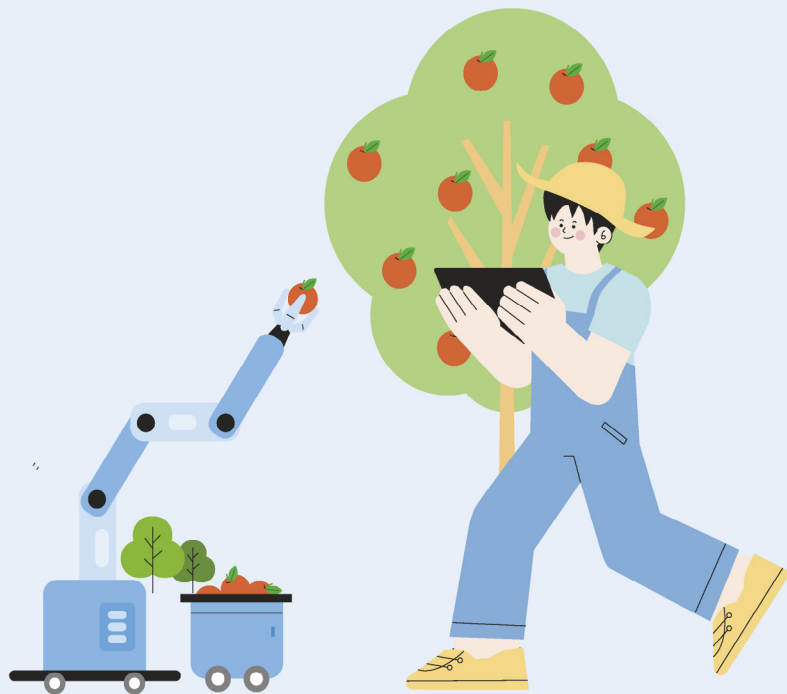


2026학년도 편입생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대학

수업료 등 전액 국비 지원
전교생 기숙사, 숙식 제공
2학년 농어장 현장실습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모집인원 54명

작물·산림학부	원예학부	축산학부	농수산융합학부
19	9	14	12

모집단위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전공, 특용작물전공, 버섯전공, 산림전공, 조경전공
원예학부	채소전공, 원예환경시스템전공, 과수전공, 화훼전공
축산학부	한우전공, 낙농전공, 양돈전공, 가금전공, 말산업반려동물전공
농수산융합학부	농수산푸드테크전공, 농수산비즈니스전공, 산업곤충전공, 수산양식전공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불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추가 발생 결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모집일정

원서접수	2026. 6. 29.(월) 09:00 ~ 7. 10.(금) 18:00
면접대상자 발표	2026. 7. 15.(수)
면접고사	2026. 7. 22.(수)
합격자 발표	2026. 7. 29.(수)
합격자 등록	2026. 7. 29.(수) 09:00 ~ 7. 31.(금) 18:00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6. 8. 3.(월) ~ 8. 7.(금)

자세한 입학 정보는 대학 홈페이지(<http://www.af.ac.kr>) 참고
원서접수는 대학 홈페이지(<https://www.af.ac.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